

제14회 이사회 의사록

2007. 12. 10(월) 11:00

한 국 관 광 공 사

2007년도 제 14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7. 12. 10(월) 11:0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안 건 : 총 3건

(보고안건)

◎ 2008년 예산(안) 보고 : 원안접수

◎ 백두산 현장답사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2007 Korea in Motion, 대구” 행사결과 보고 : 원안접수

4. 재적 이사 : 9명

5. 출석 이사 : 9명

6. 참 석 자

의 장 오 지 철	이 사 김 지 상
-----------	-----------

이 사 강 광 호	이 사 신 진 기
-----------	-----------

이 사 최 갑 열	이 사 도 영 심
-----------	-----------

이 사 홍 주 민	이 사 정 의 선
-----------	-----------

이 사 김 향 숙

7. 의 사 록 : 붙임

의 장 :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14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먼저 지난 제13회 이사회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 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13회 이사회 결과 보고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3건이며, 모두 보고안건으로
2008년 예산(안) 보고, 백두산 현장답사 결과 보고,
“2007 Korea in Motion, 대구” 행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 장 : 그럼 먼저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보고하다)

김지상 이사 : 당초 예산(안)은 분량도 방대하고 이해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안건 심의 이전에 그 내용을 좀 더 숙지

하고자 소위원회나 비상임이사회를 등을 빌어 설명을 듣자고 했던 것인데, 오늘 이사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비록 이사회에서 안건 보고를 받기는 합시다만, 좀 더 미리 안건을 받았더라면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8년 예산(안)은 다음 이사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사항이므로 그 전에 사전 설명을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안건 심의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예산(안) 내용 중에는 인천공항면세점의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면세점 계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예산(안)에 현재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업단지원팀장 : 이사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면세점의 임대료는 521억원으로 잠정 결론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예상수익은 약 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공사에 제시한 실무적인 제안에 대해 공사는 이미 답변을 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최종적인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제안은 공사 매장 786평중 49.4평 정도를 반납해주면 그에 상응하여 임대료 재조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는 단순히 반납하는 면적에 대한 산술적인 비율의 임대료 조정이 아닌 추가 조정을 해줄 경우 해당면적을 반납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임대료는 최초 790억원에서 시작하여 2회에 걸친 국무조정회의 결과 521억원으로 다운됐습니다. 민간사업자 평균은 593억원인데 공사의 경우는 저수익형 매장인 한류관 95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제외한다는 명분이 관철된 것입니다. 공사는 현재 임대료 추가조정을

위해 여러 가지 명분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470억원 내지 450억원 사이로 재조정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앞으로 취급할 품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인기품목이라는 주류나 화장품은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지상 이사 : 그렇다면 나머지 품목만을 취급해서도 목표 매출액은 달성 가능합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첫째 매출액을 1,59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류, 담배, 향수,化妆품을 빼고는 모든 품목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그렇게 해서 계산된 추정수익이 임대료 521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8억원이라는 말씀이군요?

사업단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지상 이사 : 예년에 비하면 수익 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되겠군요?

사업단지원팀장 : 인천에서만 8억원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 9개 면세점에서는 102억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실적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저도 면세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업수익이 이렇게 크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521억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면세점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유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밖에서 공사 면세점 문제를 거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고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영심 이사 : 521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예상하는 수익이 8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부 감원을 할 생각이십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앞으로 매장 면적이 61평정도 줄어들 경우 정직원 이외의 계약직 직원들 40여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도영심 이사 : 그분들은 계약 종료가 된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공사 면세점의 경우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을 종료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영심 이사 : 팀장님이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사가 예전에는 면세사업을 독점해오다가 점차 민간업체들이 사업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그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면적이 얼마가

되던, 수익이 얼마가 나던 다른 민간 면세점들과는 취급품목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역할 면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수익만 올리자고 면세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매장 면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명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1년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약 180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도영심 이사 : 그러면 거기에 환승객들까지 합치면 2천만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사는 그 사람들이 공사 면세점에 방문하도록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코리아 스파클링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상품 디자인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공사면세점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팔려면 먼저 취급하는 품목에서부터 다른 사기업 매장에서 다루는 상품들과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해묵은 논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가 매장면적을 일부 반납할 경우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단지원팀장 : 예, 이사님 말씀대로 반납요청 면적에 대한 금액의 두배 정도를 임차료 협상 시 인하해 주도록 이미 인천공항 공사측에 제시하였습니다.

김지상 이사 :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익이나 규모면에서 공사 면세점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매장 재배치 공사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매장 규모가 바뀌면서 전체 면적에 대해 각 매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뿐 아니라 인천공항내 면세점 구조를 전면 재배치하기로 인천공항 측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지출은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매장 재배치 공사비가 공사의 1년 치 수익보다 더 큰 금액이군요

신진기 이사 : 입주업체가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기왕 이렇게 면세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된 이상 취급품목에서 이전에 도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만이 차별화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경영진이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시겠지만, 향후 추가 임차료 협상 과정에서 공사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지원팀장 : 이사님들의 말씀대로 향후 취급상품 선정 과정에서 공사 면세점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향숙 이사 : 중복되는 말인 것 같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도이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항을 이용할 때 공사 면세점에 들러보면 뭔가 사기업에 비해 직원들 서비스가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품목에서 뿐만 아니라 직원들 태도도 공사 면세점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서비스에서도 민간기업 보다는 훨씬 더 나아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기적 이익에 매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 고급스러운 브랜드 개발도 열심히 하고, 특히 한류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통할 수 있는 관광공사 이미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 면세점에서 심지어는 고객행위 비슷한 경험까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간의 배치등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고객들로 하여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재래시장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이 그리 길지만은 않겠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시행될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단지원팀장 : 이사님들 말씀 명심하여 반드시 면세점 운영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문제가 완전 종결되면 다시 한번 이사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의선 이사 :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11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산(안)을 세운 이유는 토지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까?

예산팀장 : 토지분양도 증가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의 수익 증가로 인하여 지분법 평가이익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의선 이사 :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보고 내용 중 3페이지에는 보면 임대알선사업수익이 15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25억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옥임대에서 매출원가는 같은 25억원인데 매출액이 9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페이지의 임대알선사업수익에는 다른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 장 : 예산팀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한 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동안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이사 :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당기순이익이 112.7% 증가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자회사의 지분 평가이익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는 자회사 지분 평가이익이 없었나요?

예산팀장 : 작년부터서야 GKL 영업수익이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향숙 이사 :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자체 영업수익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공사가 마치 자회사 이익에만 의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의 장 : 그 부분은 공사가 자회사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이익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면세점 연간 수익금을 8억원이라고 예상한 것은 단지 주력품목이 바뀌는 첫해임을 감안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경상비 절감이라든지 물류비용 절감 등 점차 수익이 증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이사 : 제 생각에 평가이익이란 단지 숫자상에 불과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 장 : 자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일정부분은 대해 재투자하고 나머지 이익의 50%까지는 지분에 대한 이익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금의 일부를 실제로 배당 받게 됩니다.

김지상 이사 : 공기업은 수익증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공사가 충분한 역량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내용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 3% 인상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 각종 학자금이라든지 건강진단비, 수당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지상 이사 : 그렇군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해외조직망운영 등에 29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 해외지사 및 지원부서 운영비입니다

김지상 이사 :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영업활동 등 수익 예산에 보면 26억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임대료가 오르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내년도 서남지사 골프장 오픈에 따른 예상 수익을 16억원 정도로 추정한 것입니다.

김지상 이사 : 그리고 9페이지에 국내관광 진흥활동 142억원에 대한 명세를 보면 아·태관광투자컨퍼런스와 내나라여행박람회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가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예산팀장 : 나머지 행사들은 금액이 매우 미세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 행사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지상 이사 : 그리고 사무실 비품비용이 1년에 24억원이나 필요합니까?

예산팀장 : 정보화 투자비 및 직제변경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공사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지상 이사 : 사무실 재편 공사비도 포함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내년 외래객 유치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홍주민 이사 : 경영목표에 66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영심 이사 : 지금 보면 뉴질랜드, 호주와 유럽을 왕래하는 여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객들을 모두 인천공항에 들르도록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들한테 한국을 최종목적지로 어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톱오버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1박이나 2박 정도 한국에 머물다 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주로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인천공항이 새 공항이라는 장점 때문에 여행객들 사이에 매우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잇 점을 살려서 한국은 스톱 오버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북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으로 경유시켜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인천공항이 막 뜨고 있으니 그 효과를 1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국제관광박람회를 다니며 느낀 점인데, 현재 세계 관광업은 FITUR, ITB, WTM 등 주로 3개 대형 박람회가 주도해 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때 공사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하여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얼마든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ITB에서는 해마다 주제에 따라 한 국가를 선정해서 집중 홍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벌써 다른 나라로 정해졌습니다만 한국도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국제관광엑스포에만 가면 우리나라가 다소 왜소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내후년쯤에는 북한도 함께 포함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에 걸맞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 조금 전 정의선 이사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임대알선수익에는 제주중문 골프장 운영에 따른 60억 원과 사옥임대비용 약 9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주민 이사 : 도이사님 말씀대로 스톱오버관광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서울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항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박상품은 이미 판매중이며, 1박상품은 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지사를 통해 홍보물을 배포중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사별로 유치 목표를 정해 추진 중이며 본사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지사별 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주민 이사 : 현재 스톱오버관광객 유치 실적은 전체 유치 규모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못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톱오버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도 매년 스페이스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 이사님께 도움도 요청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광박람회의 주빈국 행사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토를 해 보았으며, 결론적으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참여해야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수 엑스포 등 국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작년 골프장 수익은 얼마였습니까?

예산팀장 : 작년에는 적자였고 올해 8억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예산(안) 내용을 보면 클럽하우스 개보수, 진입로 확장 포장 공사, 중문골프장 장비 구입 등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운영의 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민간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것 이구요.. 마치 애플단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간에 넘겨 운영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공사는 또 합니까?

강광호 이사 : 안내소에서 신라호텔 입구까지 현재 편도 3차선인데, 성수기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공사가 부지를 내고 제주도가 공사비를 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비 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불하는

삼일회계법인에 컨설팅을 해봤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골프장이 중문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사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는 개보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구요. 개보수 해서 민간에 불하해도 현재로서는 별 이득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거기다가 직원 고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골프장 평가가치가 높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예산(안)은 연말에 딱 닿아서 확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6페이지에 국내관광진흥사업에 142억원이 책정되었고, 거기서 내나라여행박람회 에 10억원, 구석구석 캠페인 사업에 27억원 등이 세부적으로 책정되었는데, 막상 집행할 때 다소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별도 증액이 가능하지요?

예산팀장 :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는 모두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예비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의 장 : 이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 예산(안)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백두산 현장답사 결과에 대해 남북관광사업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광사업단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백두산 현장답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이사 :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 직항노선은 김포에 개설되니까?

남북관광사업단장 : 아직 거기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백두산 현장답사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2007 Korea in Motion, 대구 행사 결과에 대해 행사운영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2007 Korea in Motion, 대구 행사결과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이번 행사에 외국 취재진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행사운영팀장 : 외국 취재진은 35명이 왔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 Korea in Motion, 대구 행사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4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타봉)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07. 12. 10.

의 장 오 지 철

이 사 김 지 상

이 사 강 광 호

이 사 신 진 기

이 사 최 갑 열

이 사 도 영 심

이 사 홍 주 민

이 사 정 의 선

이 사 김 향 숙